

작약류(*Paeonia* sp.) 종류와 특성

1. 한국에 자생하는 작약류 종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작약류는 4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용 및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작약을 포함하여 총 5종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작약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와 일반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한 보호와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산작약 *Paeonia obovata* Maxim.'에 대해 명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분류학적인 정리를 위해 분자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 DNA 수준에서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에 의해 현대적인 차이, 생육지의 특성, 개체군 동태와 분포 범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충분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산작약 *P. obovata* Maxim.



백작약 *P. japonica* (Makino) Miyabe et Takeda



참작약 *P. lactiflora* var. *trichocarpa* (Bunge) Stern



호작약 *P. lactiflora* var. *hirta* Regel.

2. 작약류의 특성과 분포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으로 지정한 산작약은 주로 우리나라의 중부 이북에 분포하며 2016년까지 수행한 분포조사에서 약 40곳의 분포지를

확인한 바 있다. 산작약의 주요 분포지는 강원도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강릉시(백두대간 서쪽, 대기리 일원), 홍천군, 춘천시 그리고 충청북도 단양군, 경기도 포천시가 있다. 백두대간의 동쪽에는 분포지가 확인된 바 없다.

멸종위기야생식물인 산작약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다른 작약류인 백작약, 참작약 및 호작약과 형태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산작약의 잎은 어긋나며 2번 갈라지는 겹잎이고 잎의 뒷면에 털이 나있고 잎 앞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한 녹색이다. 백작약은 잎 서너개가 어긋나고 3개씩 2회 갈라지며 잎 가장 자리가 깊고 털이 없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은 산작약과 백작약 (*Paeonia japonica*)인데 산작약 꽃은 색이 적색 또는 분홍색이고 꽃줄기 (화경)가 2배 이상 길고 꽃의 크기도 백작약에 비해 1/2정도로 작은 차이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산작약은 백작약에 비해 꽃이 피는 시기가 늦은데 약 30~40일의 차이가 난다. 즉, 백작약이 개화(4월 하순에서 5월 초순)한 이후 약 30~40일이 지난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개화한다. 반면에 참작약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과 호작약(*Paeonia lactiflora* var. *hirta*)은 흔히 약용으로 재배하거나 관상용으로 키우는 ‘작약 *Paeonia lactiflora*’과 닮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재배하는 작약을 제외하고 참작약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은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 울진, 경북 문경 등지를 비롯하여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 양양, 고성, 영월, 정선, 홍천 등지에 분포한다. 강원도 삼척시 일원에는 참작약의 분포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삼척시 미로면, 신기면 일대에는 참작약의 대규모 분포지가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에 호작약(*Paeonia lactiflora* var. *hirta*)은 우리나라 북부 지방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산작약의 성장 특성, 5월 13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 이 시기에 백작약은 개화가 끝나고 꽃이 지는 시기에 해당함.

▶ 멸종위기야생식물인 산작약과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주요 작약류 비교

| 산작약(<i>Paeonia obovata</i> Maxim) 멸종위기식물 II급 | 백작약(<i>Paeonia japonica</i> (Makino) Miyabe et Takeda) | 참작약(<i>Paeonia lactiflora</i> var. <i>trichocarpa</i> (Bunge) Stern) |
|--|---|---|
| A single red peony flower bud (Paeonia obovata) growing on a stem with green leaves. | A white peony flower (Paeonia japonica) with a yellow center, surrounded by green leaves. | Multiple white peony flowers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with yellow centers, growing on a bush. |
| 꽃 | 꽃 | 꽃 |
| The whole plant of Paeonia obovata, showing its green leaves and a single red flower bud at the top. | The whole plant of Paeonia japonica, showing its green leaves and a single white flower. | The whole plant of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showing its green leaves and multiple white flowers. |
| 식물체(전초) | 식물체(전초) | 식물체(전초) |
| A young Paeonia obovata plant with a long, thin stem and a single red flower bud. | A young Paeonia japonica plant with a long, thin stem and a single white flower. | A young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plant with a long, thin stem and multiple white flowers. |
| 생장초기 | 생장초기 | 생장초기 |
| A Paeonia obovata plant in early growth, showing its green leaves and a single red flower bud. | A Paeonia japonica plant in early growth, showing its green leaves and a single white flower. | A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plant in early growth, showing its green leaves and multiple white flowers. |
| 잎 | 잎 | 잎 |
| The leaves of Paeonia obovata, which are deeply lobed and green. | The leaves of Paeonia japonica, which are deeply lobed and green. | The leaves of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which are deeply lobed and green. |
| 열매 | 열매 | 열매 |
| The fruit of Paeonia obovata, which is a purple, elongated capsule. | The fruit of Paeonia japonica, which is a purple, elongated capsule. | The fruit of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which is a purple, elongated capsule. |